



세주주보

주님 성탄 대축일 2020. 12. 25.(나해) 제2247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 요셉』, 귀도 레니, 1620년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놀라운 신비는 이천 년을 넘게 이어 온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며 이 기쁨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마냥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에는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매우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 상황 속에서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람 사이의 전염력이 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상 초유의 비대면 문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성당에 모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우리 신앙인들이 느끼는 충격은 더 큰 것 같습니다. 파스카 성삼일과 부활 대축일마저 성전에 모여 함께 미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중계되는 미사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고해성사를 통해 화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 목청껏 성가를 부르며 성체를 모실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 편하게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멈춰 버린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누가 다가오는 것을 경계하게 되었고, 마스크를 제대로 썼는지, 감염자는 아닌지 의심하고 불안해하며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끝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아래에서 추운 겨울을 맞았습니다. 올겨울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더욱 혹독한 계절이 될 것입니다. 경제 활동이 얼어붙어 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거리두기 단계의 강화로 서민들은 생계 활동을 이어 나가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들의 올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 것입니다. 연말의 다양한 자선 활동도 위축되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사람들의 삶은 더 힘겹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자선에 앞장서며,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돕는 사랑의 봉사 행위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았습니다. 한 줄기 빛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비칩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그 빛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한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요한 1 장 참조)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는 이 엄청난게 놀랍고 ‘기쁜 소식’(福音)은 오늘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희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내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다시 사랑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교구는 교구 설정 120년을 바라보면서 10년간의 장기 사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목교서’를 통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말씀, 친교, 전례, 이웃사랑, 선교라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2년마다 하나씩 실천하며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첫 2년 동안 ‘하느님 말씀을 따라’라는 주제로 복음 말씀 안에서 힘과 희망을 얻어 다시 일어서자고 독려했습니다.

말씀은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 안에 뿌리 내린 말씀의 씨앗을 싹 틔워야 하겠습니다. 물과 거름을 주고 햇볕을 잘 받도록 돌봐주어야 합니다. 길바닥에 떨어져 새가 쪼아 먹지 않도록, 돌밭에 떨어져 말라 버리지 않도록, 가시덤불에 떨어져 숨 막히는 일이 없도록 살피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잘 자라나 어떤 새도 쉬어갈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마태 13,1-8 참조) 그것이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길이고,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다시 한 번,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리며, 말씀의 힘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 내어 희망과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합시다. **궤**

2020년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 환 길(타대오) 대주교

주.권.관.기.리.대.오



오 거룩한 밤! (O Holy Night)

1847년 프랑스의 한 작은 도시에 플라시드 카푸 드 로퀴모(Placide Cappeau de Roquemaure)라는 와인 도매업을 하던 감식관이 있었습니다. 시인으로 잘 알려진 그에게 어느 날 교구의 신부로부터 크리스마스 미사를 위한 시를 써 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는 업무차 수도 파리로 가는 길에 덜컥거리는 마차에 앉아 요청받은 시를 쓰기 위해 크리스마스에 관해 묵상했습니다. 루카 복음을 읽으면서 카푸는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의 탄생을 증언하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축복받은 그날 밤 자신이 그 현장에 있다는 생각은 큰 영감을 가져다주었고 마침내 그가 파리에 도착할 무렵 시가 완성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작품에 매료된 카푸는 자신의 시가 단순한 시가 아니라 훌륭한 음악가의 손을 필요로 하는 노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친구인 아돌프 샤를 아당(Adolphe Charles Adam)을 찾아갔습니다. 카푸는 자신이 쓴 시를 넘겨주고 작곡을 부탁했습니다.

당시 널리 알려진 고전음악가의 아들로 파리 음악원에서 공부한 후 오페라와 무도곡을 작곡하면서 재능을 인정받아 명성을 얻고 있던 아돌프는 카푸가 넘겨준 시가 자신이 지금까지 작곡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는 그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카푸가 쓴 '거룩한 밤'이란 제목의 시를 읽어나가자 아돌프는 구세주의 탄생을 둘러싼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유대계 혈통인 아돌프에게는 자신이 축하하지도 않고 하느님의 아들로 보지도 않는 사람에 관한 것이었지만 카푸와의 우정보다 더 강력한 무엇인가에 이끌려 곧장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를 읽을 때 머리에 떠올랐던 멜로디와 아름다운 시가 엮여져 완성된 작품에 작사한 카푸나 교구의 신부는 다 같이 만족하였습니다.

이 노래는 완성된 지 3주 만에 크리스마스 전야 자정 미사에서 처음으로 연주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오 거룩한 밤(O Holy Night)'으로 소개되어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되었는데 가톨릭 성가 110번 '경사롭다'가 바로 그 곡입니다. **필문**

④ 주님 성탄 대축일

사랑은 발이 없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수는 학교에 갔다 오면 엄마가 없는 텅 빈 집이 싫었다. 그런 날이면 경수는 한참을 걸어 엄마가 어묵 장사를 하는 곳까지 갔다. 경수는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통 앞에 앉아 조그만 얼굴을 엄마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하나에 얼마유?” 망가진 유모차 위에 가득 쌓인 종이상자를 조심스레 붙잡으며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다. “오백 원인데요, 할머니.”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묵 하나를 집어 들고 입으로 호호 불었다.

“칠십이 넘으니까 이가 다 빠져서 음식 먹기가 힘들어.”

“연세에 비해서 정정하시네요. 힘든 일까지 하시니 말이에요.”

“정정하긴, 뭐. 같이 있는 할망구들 과자 값이라도 별라고 허는 일이지. 저 아래 양로원이 있거든. 근데 할망구들이 다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다고 거동들을 못 해.” “네.”

“근데, 이게 얼마라구 했지?” “오백 원이요, 할머니.”

“나이 먹으니까 입에 들어가는 게 다 까마귀 고기가 되는가봐. 들어도 금방 까먹고, 이러다 나중엔 내 이름도 까먹겠어.”

할머니는 허탈하게 웃다 말고 다시 어묵 꼬치 하나를 집어 들었다.

“오늘 점심은 이걸로 해야겠네. 저 윗동네까지 다 돌아야 허니까.”

“네 시가 다 돼 가는데 점심도 못 드셨어요? 국물하고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두 개밖에 남지 않은 앞니로 조심스럽게 어묵을 베어 물었다.

“아까, 얼마라 그랬지? 또 잊어버렸네, 또 잊어버렸어.” “할머니, 정말로 잘 잊어버리시네요. 벌써 세 번이나 물어보셨는데, 좀 전에 돈 주신 것도 잊으셨어요? 아까 천 원 주셨잖아요.” “응? 내가 벌써 돈을 줬다구?” “네, 주셨어요. 이거 보세요.”

경수 엄마는 앞주머니에 있는 천 원 짜리까지 꺼내 보이며 말했다.

“난, 통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줬나?” “경수야, 할머니 아까 전에 돈 주셨지?” “응? 응.” 경수는 엄마의 물음에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낡은 유모차를 끌고 고개를 가웃거리며 걸어갔다. 힘겹게 유모차를 밀고 가는 할머니 어깨 위로 햇살 한 줄이 투명한 손을 얹었다.

“엄마, 저 할머니한테 돈 안 받았잖아, 그치?” “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대접해드린 거야.” “엄마는 지난번에도 집 없는 아저씨한테 오뎅 그냥 줬잖아. 엄마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러는 거야?”

“불쌍해서 그러는 건 아니구,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해야 하잖아.”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이웃들을 사랑하는 건 훌륭한 일이라고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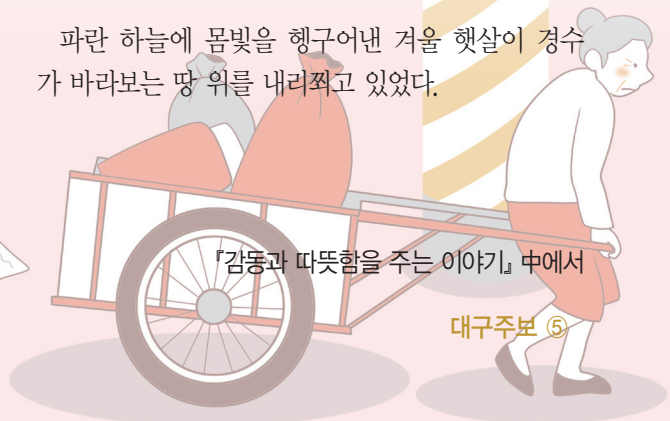
“엄마는 우리 경수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경수는 알았다는 듯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경수야, 사랑은 발이 없대. 그래서 안아 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대. 할머니는 친구들 과자 사주려고 점심도 못 드시고 일하신다고 하잖아. 우리 경수가 조금 더 크면 엄마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경수는 국물통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엄마가 해 준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사랑은 발이 없대. 그래서 안아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거래...’

파란 하늘에 몸빛을 행구어낸 겨울 햇살이 경수가 바라보는 땅 위를 내리쬐고 있었다.



『김동과 따뜻함을 주는 이야기』 중에서

주님 성탄 대축일 밤 미사

▲ 입당송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 제1독서 [이사 9,1-6]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 화답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제2독서 [티토 2,11-14]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나타났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2,1-14]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 영성체송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주님 성탄 대축일

▲ 입당송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 제1독서 [이사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화답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제2독서 [히브 1,1-6]

〈하느님께서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1-18]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 영성체송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정말 정말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 안내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26일(토) 11:00 한티피정의집

2021년 사제·부제 서품식 일정 변경에 따른 안내말씀

12월 29일(화)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2021년 사제·부제 서품식이 코로나19의 급증세로 부득이 지난 20일 대림 제4주일 오후 3시에 거행되었습니다.

미처 소식을 접하지 못하셨거나 서품식에 참석하지 못하신 교우 분들께서는 대구대교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서품식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기쁨'과 함께 하는 가정성화 기도 이벤트 안내

“사랑의 기쁨과 함께하는 가정성화 기도서”를 12일 동안(12월 16일 ~ 27일) 함께하신 분들에게 알립니다. “사랑의 기쁨과 함께하는 가정성화 기도서”를 들고 구유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그 중 100명을 추첨하여 케이크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1가구당 1회 응모)

기간 : 12월 27일 ~ 2021년 1월 8일 ※ 당첨자 선정 발표 : 1월 12일(화)

방법 : 천주교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카카오톡 채널로 사진 전송

문의 :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 3114



대구주보 2021년 상반기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원고 모집

주제 및 내용 | 입교, 선교 등 기존의 신앙 수기 형식이 아닌 성경 말씀을 기초로,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한 소소한 이야기

형식 및 분량 | 수필형식의 글로 분량은 한글 12포인트 크기 A4 1페이지 분량

기간 및 방법 |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 대구주보 이메일 jubo@dgca.or.kr 또는 방문 접수 (매월 대구주보 4면에 게재될 예정이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점은 교구 문화홍보국 주보담당 053)250-304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주도·추차도
국내 167 곳의 거룩한 땅
성지순례단 모집

★ 4명 이상 수시 출발 가능 ★

T. (053)253-3399

(주)성지여행 조철래(유스티노)
홍미희(안젤라)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전증 학회장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진심을 담아 진료합니다
진심내과 의원
의학박사 손지현 (아베스)

심장검진 | 심장초음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1999 (동산동) 척담병원 3층
청리연택(신남)역 9번출구 진료문의, 053-422-3334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자감사선물-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선우(마리아)

♥ 롯데백화점 대구역점 맞은편 왼쪽방향 ♥
공영-진흥추차장 무료 | 영업시간: 11:00~19:00
☎053)428-7989 | 010-4439-9991
♥ 예쁜 선물 증정 ♥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송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테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정물치료정신의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최병선(요한) 신부
1987년 12월 27일
- 김보록(바오로) 신부
1922년 1월 2일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행사 | 모임

동계 사제성소 피정

중3~고2: 2021.1.20(수)~22(금)
장소: 농은수련원
고3·대학·일반: 2021.1.27(수)~29(금)
장소: 한티피정의집
(참가 학년은 2021학년도 기준)

교육 | 모집

2021 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 12.21(월)~31(목)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대구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자유대학원
인문학석사학위 신입생 모집
접수: 12.21~31 / 월, 목 야간 강의

대상: 학사학위 소지자(전공 무관)
혜택: 학생 전원 50% 장학금
문의: 660-5252~4
(010)6563-0409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정시 모집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DCU스마트인재장학 전원 장학혜택
접수: 2021.1.7(목)~11(월)
정원: 2,862명 / 문의: 850-2580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1월 중순~5월 초 10:00~17:30
매주 화, 목, 토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선착순 8명)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143-5508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정시 모집
접수: 2021.1.7(목) 9:00~11(월) 18:00
모집: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문의: 입학관리부, (051)510-0702
<http://ipsi.cup.ac.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650-3529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채용 | 안내

파손 및 버릴 폐기용 성물 접수
성지에서 폐기해드립니다.(1박스 1만원)
주소: 문경읍 새재로 600
(양업명상센터)
후원: 농협 301-0197-7617-31 안동교구
문의: 문경마원성지, (010)9944-0145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7~9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신규 계약0-118호
스타리 단말 가장 개성적!
Speech.Kim 스피치킴 교육
스피치킴
리더십&발표력&자신감
스피치킴의 특별한 전라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레젠테이션, 수업평가, 인사·취업 면접, 화술·회담, 대중스피치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킴 교육 본원(대백프라자 앞) T.010-5538-3809
NAVER 스피치교육학 김광익(사바나)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장례식장 053)650-4444/657-4444
성요셉요양병원
장례식장 053)617-3644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가람소방방재(주)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
◆종합정밀점검 ◆소방관련기술교육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현씨노비르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모든 면에서 편안하고
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3요한 1,2)
전인병원
[대표전화] 1688-7667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